

파키스탄 경제 불안 현황과 전망

김경훈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부연구위원 (kimpolecon@kiep.go.kr, 044-414-1263)

남유진 세계지역연구센터 인도남아시아팀 연구원 (yoojin@kiep.go.kr, 044-414-1330)



차 례

1. 금융시장 불안 현황
2. 파키스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요인
3. 전망과 시사점

주요 내용

▶ 최근 파키스탄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이 제기됨.

- 파키스탄 경제가 △ 세수 부족과 보조금 부담 △ 생필품에 대한 높은 수입의존도 △ 제한적인 외환보유액 등의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 외부환경이 악화되자 파키스탄 금융시장의 불안이 고조됨.
- 2022년 6~7월 주요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파키스탄의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함.

▶ 상호 연결된 세 가지 요인이 파키스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킴.

- IMF(국제통화기금)와 파키스탄 정부의 협상 과정이 장기화되면서 '구제금융 지급 시기'가 지연되고 있음.
- △ 물가 부담 확대 △ 기준금리 인상 △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심화되고 있음.
- 집권여당에 대한 지지가 악화되는 가운데 야당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며 '정정 불안'이 고조되고 있음.

▶ 2022년 하반기에 파키스탄이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나, 향후 디폴트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정부가 일대일로 핵심 국가인 파키스탄에 채무 연장을 약속하고 파키스탄 정부가 IMF에 강력한 경제개혁안을 제시하면서 최근 IMF가 파키스탄에 구제금융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아짐.
- 그러나 사회적 불만 → 정정 불안 → 경제개혁 둔화 → IMF의 구제금융 재협상의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 한국정부는 파키스탄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수혜국 수요에 적합한 분야를 중심으로 원조를 제공하고,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채무위기 해결방안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기업은 파키스탄의 디폴트 관련 리스크를 반영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파키스탄에 식량안보, 홍수,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G20의 채무조정공동체계 추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한국기업은 파키스탄의 디폴트가 현지 공급망, 금융시장, 소비시장에 미칠 영향을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 금융시장 불안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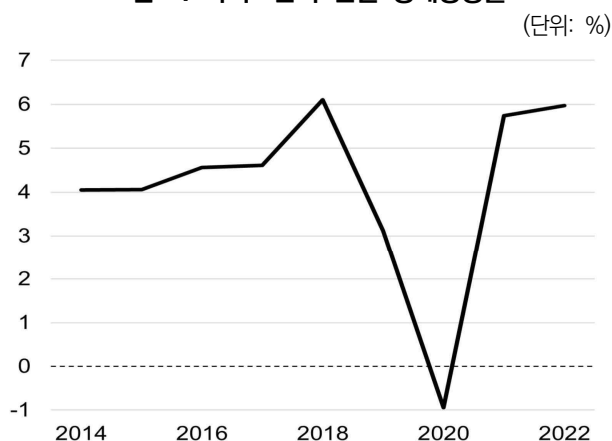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파키스탄 경제는 점진적인 회복세에 진입하였음.

- 파키스탄 경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으나, 2021년과 2022년(재정연도 기준) 5%를 상회하는 성장률을 기록함(그림 1 참고).¹⁾
 - 2022년 농업이 4.4%, 제조업이 9.8%, 서비스업이 6.2% 성장함.
 - 파키스탄 정부가 아시아 주변국에 비해 봉쇄를 일찍 완화하고 수출 지원책을 추진한 결과 핵심 수출동력인 섬유 산업²⁾이 특히 빠르게 성장함.

■ 그러나 2022년 상반기부터 자금유출이 확대되면서 파키스탄의 금융위기 발생 가능성이 제기됨.

- 2022년 2/4분기부터 파키스탄 루피화 가치 하락이 가속화되는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심화됨.
 - 달러당 파키스탄 루피 환율이 2022년 4월 28일 기준 186루피에서 7월 28일 기준 240루피로 급상승하며 루피화 가치가 3개월 동안 23% 하락함(그림 2 참고).
- 2022년 7월 블룸버그는 스리랑카, 레바논 등 디폴트를 이미 선언한 국가를 제외한 신흥국의 국가채무 취약성 순위에서 엘살바도르, 가나, 튀니지에 이어 파키스탄을 4위로 선정함.³⁾
- 2022년 6~7월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피치, S&P가 순차적으로 파키스탄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조정함.

그림 1. 파키스탄의 연별 경제성장률



주: 재정연도 기준임. 예를 들어 2022년의 경우 2021. 7. 1~2022. 6. 30을 의미함.

자료: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그림 2. 파키스탄의 일별 루피 환율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1) Government of Pakistan, Finance Division(2022), "Pakistan economic survey 2021-22."

2) Asian Development Bank(2022), "Pakistan's economy and trade in the age of global value chains."

3) 채권수익률, 신용부도스왑(CDS) 스프레드, GDP 대비 국제이자비용, GDP 대비 국가채무비용을 분석해 순위를 선정함. Maki, Sydney(2022. 7. 8), "Historic cascade of defaults is coming for emerging markets," *Bloomberg*.

■ 코로나19 팬데믹,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선진국 기준금리 인상 등 개발도상국 경제에 부정적인 요인이 연이어 발생하자 파키스탄 경제의 취약성이 노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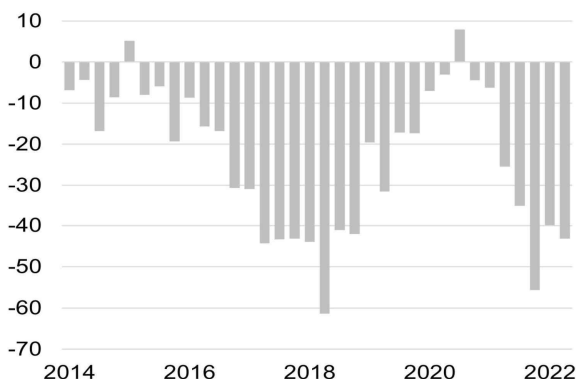
- [재정] 세원이 제한적인 가운데 파키스탄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고, 채무 이자 부담이 늘어나며,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지출이 발생하면서 재정이 악화됨.
 - 2017년과 2021년 사이 GDP 대비 정부부채가 61%에서 74%로 확대됨.⁴⁾
- [물가] 교통 인프라와 저장 시설이 열악하고 수입의존도가 높아 물가가 국제자원가격 변동에 민감함.⁵⁾
 -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이 2021년 7월 8.4%에서 2022년 7월 24.9%로 급증함.⁶⁾
- [국제수지] 상대적으로 견고한 해외노동자의 송금액 유입에도 불구하고 내수과열과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수입증가로 인해 경상수지 적자가 확대되었고 외환보유액이 빠르게 감소함(그림 3, 4 참고).

■ 본고에서는 향후 파키스탄 금융시장의 향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 IMF 구제금융 지급 시기 △ 사회적 불안 △ 정정 불안을 분석하고자 함.

- 해당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파키스탄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이 약화되고 국제자금 유출이 가속화되며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IMF와 파키스탄 정부 간 경제개혁 강도에 대한 줄다리기와 함께 IMF와 주요 채권국 사이의 마찰이 지속되면서 구제금융 협상 과정이 파키스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물가 및 금리 상승에 따른 생활고와 자연재해 피해로 인해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어 파키스탄 정부가 IMF 구제금융 계획하의 경제개혁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님.
 - 야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확대되는 가운데, IMF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집권여당이 사회적으로 인기가 없는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며 조기 총선 시행 요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됨.

그림 3. 파키스탄의 분기별 경상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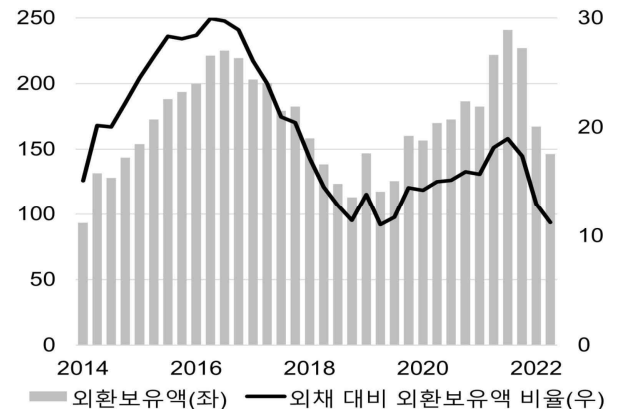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그림 4. 파키스탄의 분기별 총 외환보유액

(단위: 억 달러, %)



자료: State Bank of Pakistan.

4) IMF(2022),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April 2022."

5) World Bank(2022), "South Asia economic focus Spring 2022 - Reshaping norms: A new way forward."

6)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2022), "Monthly review of price indices July, 2022."

2. 파키스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 요인

가. IMF 구제금융 지급 시기

■ 파키스탄은 경제구조가 열악해 ‘세계경제의 환절기에 항상 감기에 걸리는’ 전형적인 국가임.

- 농업 및 제조업의 열악한 기반과 인구 급증으로 인해 파키스탄은 소비증가가 생산증가를 압도하며 삶의 질이 악화되는 ‘맬서스의 저주’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은 국가로 지목됨.⁷⁾
 - 2022년 파키스탄의 출생률은 인구 1,000명당 27.2명, 인구 증가율은 2.0%로 방글라데시(17.5명, 1.0%), 인도(16.3명, 0.7%) 등 주변 개발도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음.⁸⁾
- 파키스탄은 수요 탄력성이 낮은 연료, 식료품 등 생필품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가로, 국제자원가격 변동에 취약하고 경상수지 적자가 고질적인 문제로 고착되었음.⁹⁾
 - 2021년 7월~2022년 3월 파키스탄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00%, 식용유 수입이 48% 증가하며 총수입이 49% 늘어남.¹⁰⁾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 파키스탄이 IMF의 구제금융 체제에 총 세 차례 들어간 결과, 지난 15년간 IMF의 구제금융을 지원받지 않은 해는 4개년에 불과함(그림 5 참고).

- 글로벌 금융위기의 타격을 받은 파키스탄은 2008년 11월~2011년 9월 대기성차관(SBA) 자금을 지원받음.
-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양적완화 축소 발표 이후 긴축 발작(Taper Tantrum)의 영향을 받은 파키스탄은 2013년 9월~2016년 9월 확대신용금융(EFF) 자금을 지원받음.
- 자금부족 상황에 직면한 파키스탄은 2019년 7월 EFF 자금을 지원받기 시작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 피해 지원 성격의 신속자금(RFI)을 2020년 4월 별도로 지원받음.
 - 2020년 3월 IMF는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고려해 파키스탄의 경제개혁에 대한 EFF 관련 실사를 연기함.

■ 파키스탄 정부의 경제개혁이 지연되면서 IMF 구제금융 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최근 글로벌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파키스탄에서 자금부족사태가 심화됨(표 1 참고).

- 파키스탄 정부의 구제금융 계획 조건부 이행에 불만족한 IMF는 2021년부터 구제금융 지급 시기를 조정함.¹¹⁾
 - IMF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연기된 EFF 자금 지원을 2021년 3월에 재개했으나, 2021년 6월 자금 지원을 다시 중단함.
 - 2021년 6월 기준 IMF는 파키스탄 정부가 경제 구조조정 조건부 15개 항목 중 1개 항목을 충족하였고,

7) Sathar, Zeba(2020. 1. 18), "Proving Malthus right," *Dawn*.

8) UN Population Division(2022), "World population prospects: The 2022 revi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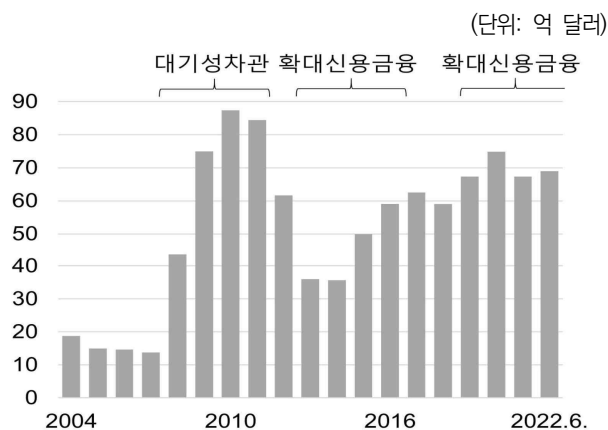
9) State Bank of Pakistan(2019), "The state of Pakistan's economy - Third quarterly report 2018-2019."

10) Government of Pakistan, Finance Division(2022), "Pakistan economic survey 2021-22."

11) IMF(2022), "Pakistan: 2021 Article IV consultation."

- 5개 항목을 기존에 약속한 시기보다 늦게 충족하였으며, 9개 항목은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함.
- 파키스탄 정부가 개혁에 대한 의지를 표출하고 경제개혁안을 제시한 결과 IMF는 '성과 기준의 적용 및 미준수에 대한 면제'를 허가하며 2022년 2월에 자금을 지원함.
 - 파키스탄의 취약한 경제구조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열악해진 상황에서, 2022년 상반기 글로벌 고물가, 선진국발 통화 긴축, 루피화 가치 절하로 인해 파키스탄의 국제수지 불균형이 심화됨.
 - 파키스탄의 경상수지 적자와 채무상환 규모 등 총 대외자금필요액이 확대된 반면 외국인직접투자, 주식 및 채권 투자, 대출금 유입 등 사용 가능 자금은 축소됨.
 - 파키스탄의 외환보유액이 고갈되기 시작했으나 IMF와 파키스탄 정부의 협상 과정에서 다시 마찰이 발생하면서 파키스탄이 2022년 2월 이후 5개월 이상 IMF의 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상황임.
 - 파키스탄 정부가 이행하기로 한 사업자 세금감면제도 폐지, 소득세 제도 조정, 전력산업 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 등 경제개혁안의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150억 달러 규모의 연료 및 전기 보조금 계획을 발표하자 IMF는 자금 지원을 중단함.¹²⁾
 - 2022년 4월에 들어선 새로운 정부가 사회적 반발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경제개혁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IMF와의 구제금융 협상이 재개되며 경제개혁의 강도에 대한 조율이 진행되고 있음.¹³⁾
 - 2022년 7월 파키스탄 정부는 IMF와 '실무자 합의안'을 도출하였으며, IMF 이사회가 합의안을 승인할 경우 11억 8천만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¹⁴⁾
 - IMF는 파키스탄의 EFF 완료 시기를 2022년 10월에서 2023년 6월로 연장하고, 전체 지원 규모를 9억 6천만 달러 증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음.

그림 5. IMF의 연별 파키스탄 구제금융 잔액



주: 연말 환율을 적용하여 특별인출권(SDR)을 달러로 환산함.
자료: IMF.

표 1. IMF의 파키스탄 구제금융 지원계획 및 실제 지급 시기(2022년 8월 1일 기준)

(단위: 백만 특별인출권(SDR), 백만 달러)

지원 계획 규모	시기	
	계획	실제 지급
716(985)	2019. 7	2019. 7
328(450)	2019. 12	2019. 12
350(496)	2021. 3	2021. 3
750(1,070)	2021. 6	2022. 2
491(692)	2021. 9	미지급
491(679)	2021. 12	미지급
491(679)	2022. 3	미지급
651(864)	2022. 9	-
4,268(5,667)	총액	-

주: 괄호 안 수치는 달러임. 월말 환율을 적용하여 특별인출권(SDR)을 달러로 환산함. 2022년 9월 자료와 총액 자료는 2022년 6월 말 환율을 적용함.
자료: IMF.

12) Shahzed, Asif & Syed Raza Hassan(2022. 3. 4), "Pakistan confident of defending \$1.5 billion fuel subsidy at IMF review," Reuters; Rana, Shahbaz(2022. 3. 12), "Impasse with IMF over PM's tax amnesty," The Express Tribune.
13) Rana, Shahbaz(2022. 4. 21), "IMF sets tough terms for bailout revival," The Express Tribune.
14) IMF(2022. 7. 13), "IMF reaches staff-level agreement on the seventh and eight reviews for Pakistan's Extended Fund Facility."

■ 파키스탄 부채에 대한 IMF와 중국 등 주요 채권국 간의 책임 전가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함.

-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에 초기에 참여한 파키스탄은 중국의 해외 건설 규모가 가장 큰 국가임(표 2 참고).
 - 양국 정부는 일대일로의 핵심 프로젝트인 460억 달러 규모의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계획을 2015년에 발표하였고, 차후 사업 규모가 파키스탄 GDP의 5분의 1 수준인 620억 달러로 확대됨.¹⁵⁾
- 파키스탄이 일대일로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대중국 채무가 크게 확대됨(그림 6 참고).
 - 2012년 3월~2022년 3월 대중국 채무 증가가 파키스탄 정부 총외채 증가의 60%를 차지함.
- IMF와 미국정부가 파키스탄의 일대일로 참여에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친 가운데 파키스탄 구제금융 협상 과정에서 중국정부에 더욱 큰 규모의 부담을 분담하도록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2017년 IMF는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 건설 추진에 따른 수입 및 채무상환 확대에 의해 파키스탄의 중기적 경상수지 적자와 대외자금필요액이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함.¹⁶⁾
 - 2018년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부 장관은 IMF 자금이 중국 채권자를 지원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였고, 파키스탄에 대한 IMF의 구제금융 관련 결정을 주시할 것이라고 밝힘.¹⁷⁾
 - 2022년 중국정부는 40억 달러 규모의 채무 만기를 연장해 파키스탄을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함.¹⁸⁾
- IMF는 파키스탄의 주요 채권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적절한 수준의 책임을 분담하지 않을 경우 파키스탄에 추가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¹⁹⁾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30억 달러 규모의 파키스탄 예금을 갹신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음.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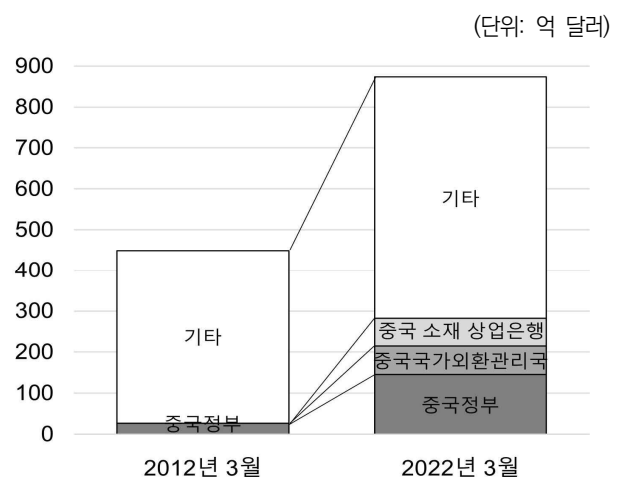
표 2. 2013년 1월~2022년 6월 중국의
해외 건설 규모(상위 10개 국가)

(단위: 억 달러)

국가	금액	일대일로 가입 연도
파키스탄	390	2013
사우디아라비아	259	2018
아랍에미리트	222	2018
나이지리아	219	2018
러시아	208	불확실
방글라데시	205	2019
인도네시아	185	2015
이집트	155	2016
말레이시아	153	2017
호주	147	미가입

자료: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Heritage Foundation; Fudan University Green Finance & Development Center.

그림 6. 파키스탄 정부의 대외채무



주: 2022년 3월 중국 소재 상업은행 자료는 2021년 6월 자료임. 대IMF 채무자료는 미포함됨.

자료: Finance division, Government of Pakistan.

15) Hillman, Jennifer & David Sacks(2021), "China's Belt and Road: Implications for the United States,"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16) IMF(2017), "Pakistan: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17) "U.S. Secretary of State Mike Pompeo speaks with CNBC's Michelle Caruso-Cabrera today"(2021. 7. 30), *CNBC*.

18) Kiani, Khaleeq(2022. 6. 23), "\$2.3bn Chinese loan expected 'within couple of days', says Miftah," *Dawn*.

19) Mangi, Faseeh & Kamran Haider(2022. 7. 20), "IMF seeks assurance on Saudi funding to Pakistan," *Bloomberg*.

20) Martin, Matthew & Faseeh Mangi(2022. 8. 14), "Saudi Arabia plans to renew \$3 billion deposit to Pakistan,"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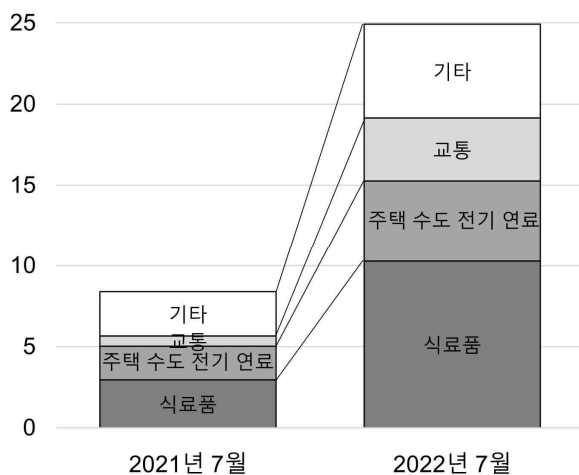
나. 사회적 불안

■ 생필품을 중심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금리가 인상되자 파키스탄 국민은 생활고에 대해 불만을 표출함.

-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지난 14년간 가장 높은 수치인 25%를 기록함(그림 7 참고).
 - 2022년 7월 소비자물가지수 구성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료품, 주택·수도·전기·연료, 교통 가격이 각각 전년동월대비 29%, 22%, 65% 상승함.
- 2022년 7월 넷째 주 51개의 생필품 가격을 반영하는 민감물가지수는 전년동기대비 38% 상승함.²¹⁾
 - IMF 구제금융을 확보하기 위해 파키스탄 정부가 보조금을 축소한 가운데 국제에너지자원 가격이 상승한 결과 디젤 가격이 102%, 휘발유 가격이 94%, 전력 가격이 53% 상승함(그림 8 참고).
 - 국내의 수급 문제로 인해 소비 구성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식품인 닭고기, 식용유, 양파 가격이 각각 76%, 75%, 64% 상승함.
- 고물가에 대한 대응책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도 생활고를 심화시키고 있음.
 - 다섯 차례의 인상으로 중앙은행의 정책금리가 2021년 9월 7.25%에서 2022년 7월 15.00%로 상승함.
- 생활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길거리 시위가 확산되고 있음.
 -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휘발유 가격을 낮게 책정했던 임란 칸 전 총리는 현정부의 휘발유 가격 인상을 정치적 기회로 활용하며 시위를 촉구함.²²⁾
 - 정부가 2022년 7월 1일부터 상업용 전력계량기당 고정판매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자 소규모 사업자들의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됨.²³⁾

그림 7. 파키스탄의 지출목적별 물가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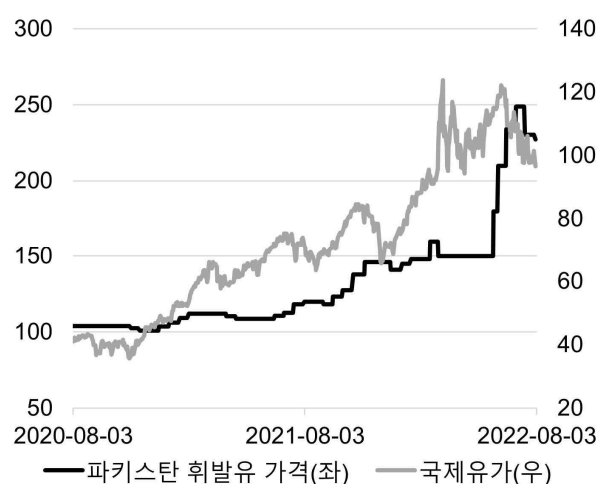
(단위: %)



자료: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

그림 8. 파키스탄의 일별 휘발유 가격과 국제유가

(단위: 리터당 루피, 배럴당 달러)



주: 파키스탄의 휘발유 가격은 프리미어 유로 5 기준임.

자료: Datastream; Pakistan State Oil.

21)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2022), "Sensitive Price Indicator (SPI) for the week ended on 28.07.2022."

22) Bokhari, Farhan & Benjamin Parkin(2022. 6. 3), "Imran Khan calls for protests after Pakistan raises fuel prices," *Financial Times*.

23) Khan, Aamir Shafaat(2022. 7. 29), "Traders protest against KE for charging Rs6,000 sales tax," *Dawn*.

글상자 1. 고물가에 따른 파키스탄 국민의 생활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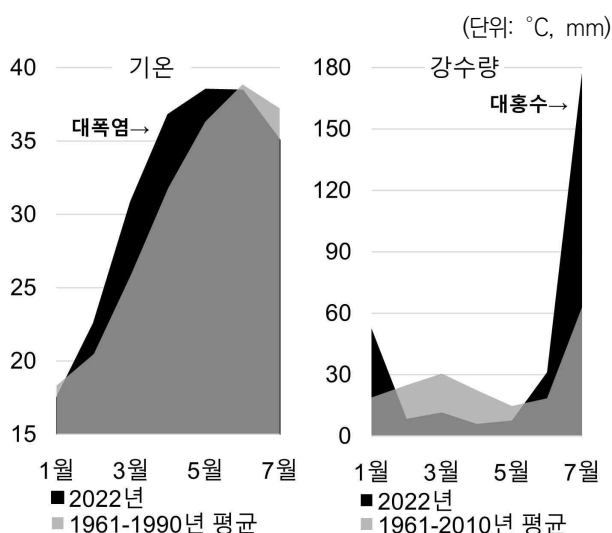
- 식료품 가격 인상으로 인해 대중적인 음식인 비리야니의 가격이 최근 2배 상승함.
- 많은 저소득층 가구에서 하루 식사를 두 끼에서 한 끼로 줄임.
- 2022년 5~7월 민간업체의 버스요금의 40% 상승하자 공공 교통수단을 꺼리는 중산층이 카풀을 대안으로 찾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카풀 관련 정보가 빠르게 증가함.
-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를 우려해 이민을 준비 중인 고숙련력도 증가하고 있음.

자료: "Pakistan economy: 'I am struggling to feed and clothe my family'"(2022. 6. 18), *BBC*; Haq, Mifrah(2022. 7. 26), "Pakistan's punishing inflation changes life as 225m people know it," *Nikkei Asia*; Suen, Thomas *et al.*(2022. 4. 14), "Less rice for the same price: inflation bites Asia's food stalls," *Reuters*.

■ 자연재해와 관련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자 정부의 대응 부족에 대한 비난이 확산됨.

- 2022년 상반기는 기온 및 강수량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덥고 건조한 기간 중 하나로 기록됨.
 - 2022년 4월 기준 낮 최고 평균 기온 36.9°C로 평년 대비 5.0°C 높았고, 강수량은 5.9mm로 평년 대비 74% 적었음(그림 9 참고).
- 파키스탄에는 매년 7~9월 몬순으로 인한 홍수가 발생했으나, 2022년 7월 강수량은 평년 대비 2.8배 수준으로 1961년에 기록이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며 홍수에 따른 피해가 특히 큼.
 - 2022년 홍수로 인한 사망자는 8월 15일 기준 전년 사망자의 3배가 넘는 628명을 기록함(표 3 참고).
- 폭염과 홍수에 따른 농산물 생산 피해로 인해 물가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정부가 홍수 예방 및 침수위험지역 알람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음.²⁴⁾

그림 9. 파키스탄의 월별 최고 평균 기온 및 총 강수량



자료: Pakistan Meteorological Department.

표 3. 파키스탄의 홍수 관련 피해 규모

(단위: 명)

연도	최종 기록일	사망자	부상자
2014	10. 9	367	673
2015	9. 8	238	232
2016	7. 5	29	-
2017	8. 7	118	154
2018	-	-	-
2019	-	-	-
2020	9. 7	230	170
2021	10. 8	198	299
2022	8. 15	628	1,010

자료: Asia Disaster Reduction Center; Pakista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uthority.

24) Akhter, Saadullah(2022. 8. 1), "'It was too late': Monsoon rains wreck havoc in remote Pakistan," *Al Jazeera*; Ellis-Petersen, Hannah & Shah Meer Baloch(2022. 5. 2), "'We are living in hell': Pakistan and India suffer extreme spring heatwaves," *The Guard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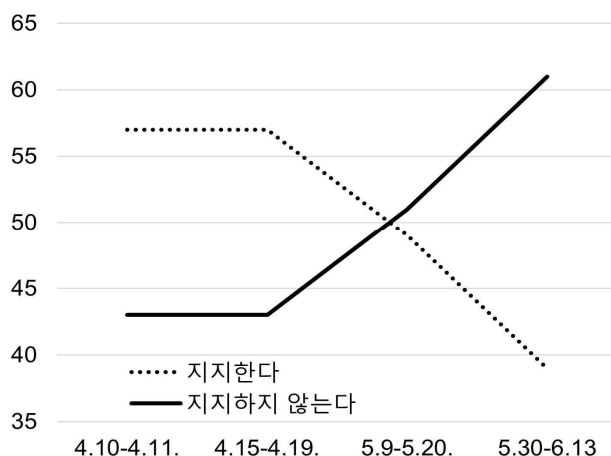
다. 정정 불안

■ 2022년 4월 총리 불신임 투표 가결 이후 정권 재탈환을 위한 임란 칸 전 총리의 투쟁이 가열되고 있고, 현정부가 경제를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면서 조기 총선 시행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2018년에 총리로 선출된 PTI당의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2022년 4월 가결되었고, PML-N당의 셰바즈 샤리프가 차기 총리로 선출됨.²⁵⁾
 - 2022년 초 물가상승에 따른 정부 지지율 하락, PTI당 및 연정 내 분열, 임란 칸 총리와 군부 간 갈등이 총리 불신임 투표 가결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 총리 불신임 투표 가결 이후 임란 칸 전 총리는 대규모 집회, 언론 노출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셰바즈 샤리프 총리의 퇴진을 주장하고 PTI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음.²⁶⁾
 - 임란 칸 전 총리는 △ 총리 불신임 투표의 배후에 미국정부와 파키스탄 군부가 있었으며 △ 정권 교체 이후 경제위기가 시작되었고 △ 조기 총선을 시행해 경제 및 정치 상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 정권교체 실패가 '경제위기 → 군대 봉괴 → 외부로부터의 핵무기 포기 압력 → 파키스탄의 삼분화'를 유발할 것이라는 강경 발언을 하며 불안을 조성하고 있음.²⁷⁾
- 2022년 4월 이후 경제상황 악화로 인해 현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낮아지는 반면, 임란 칸 전 총리와 조기 총선에 대한 지지도는 높아지고 있음.
 - 임란 칸 전 총리 불신임 투표에 대해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6월 기준 39%로 4월 중순(57%) 대비 18%p 하락하였고, '조기 총선 시행 지지'를 선택한 비율(76%)이 '예정대로 2023년 총선 시행 지지'를 선택한 응답(24%)의 3배 수준이며, 4월 중순(53%) 대비 23%p 상승함(그림 10, 11 참고).

그림 10.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 가결과 총리직 상실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22년 4~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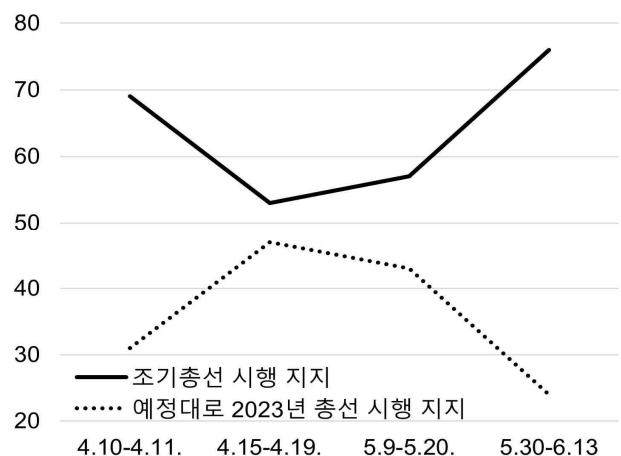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Gallup Pakistan.

그림 11. 다음 총선 시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2022년 4~6월)

(단위: %)



자료: Gallup Pakistan.

25) 백종훈, 남유진(2022), 「파키스탄 정권 교체의 배경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6) "Imran Khan: Inside the huge rally in Lahore for Pakistan's ousted PM"(2022. 4. 22), BBC.

27) "Country to head towards civil war if elections not announced: Imran Khan"(2022. 6. 1), Dawn.

글상자 2. 펀자브(Punjab)주의 정치적 위상

- 펀자브주의 인구는 2017년 기준 1억 999만 명으로 파키스탄 전체 인구의 53%를 차지함.
- 펀자브주는 2022년 8월 기준 중앙정부 여당인 PML-N당에 대한 전통적인 지지층이 많은 지역이며, 셰바즈 샤리프 현 총리의 가문 기업인 샤리프 그룹은 펀자브주의 대표 기업 중 한 곳임.
 - 셰바즈 샤리프 현 총리는 1997~99년, 2008~13년, 2013~18년 펀자브주 총리직을 수행함.
 - 셰바즈 샤리프의 형인 나와즈 샤리프는 파키스탄의 주요 부호 중 한 명이며, 1985~90년 펀자브주 총리직을 수행하며 정치적 입지를 굳혔고, 1990~93년, 1997~99년, 2013~17년 파키스탄 총리직을 수행함.

자료: Britannica: Nawaz Sharif; Pakistan Bureau of Statistics(2021), "Final results (Census-2017)"; "Profile: Shehbaz Sharif - the new PM of Pakistan"(2022. 4. 11), *Dawn*.

■ 최근 펀자브주에서 치러진 주의원 보궐선거와 두 차례의 주총리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치적 논란과 사법적 결정이 임란 칸 전 총리와 야당 PTI당의 입지를 더욱 강화함.

- 2022년 4월 파키스탄의 핵심지역인 펀자브주에서 치러진 주총리 선거에서 당시 펀자브주 의회 야당이었던 PML-N당의 함자 사바즈 후보가 여당인 PTI당의 주의원 25명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승리함.
 - 중앙의회에서 PTI당의 임란 칸 총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가결되자 지방의회의 PTI당 주의원 중 일부가 중앙의회의 여당이 된 PML-N당을 지지하기 시작함.
 - 셰바즈 샤리프 현 총리의 아들인 함자 사바즈 후보는 주총리 선거에서 주의원 총 371명 중 197명의 지지를 받으며 승리하였고, PTI당의 연합정당 PML-Q당 소속인 페르베즈 엘라히 후보는 패배함.
- PTI당 주의원들의 당 반역행위에 대한 유권해석이 발표된 후 펀자브주 보궐선거 및 차기 주총리 선거 계획이 확정됨.²⁸⁾
 - 2022년 5월 대법원이 헌법 63A조를 근거로 당론에 반하는 투표를 한 PTI당 주의원 25명의 표를 무효로 처리했으며, 이어 선거관리위원회는 주의원 25명의 자격을 박탈하였고, 7월 대법원은 주의원 보궐선거 5일 후인 7월 22일에 주총리 선거를 실시할 것을 지시함(글상자 3 참고).
- 2022년 7월 펀자브주 의회 보궐선거에서 같은 해 4월 야당으로 물러난 PTI당이 승리함.²⁹⁾
 - 보궐선거에서 지정의석할당제도의 의석 5석(비무슬림계 할당 의석 2석, 여성 할당 의석 3석)을 제외한 의석 20석에 대한 투표가 실시되었고 PTI당이 15석을 확보해 PTI당-PML-Q당 연합은 펀자브주 의회 의석 371석 중 과반인 188석을 달성함.
- 같은 달에 실시된 펀자브주 주총리 선거에서 펀자브주 의회 부의장이 야당 주의원의 표 일부를 무효화하며 함자 사바즈 후보가 주총리직을 유지하게 되자 파키스탄 전역에서 반발이 확산됨.
 - 페르베즈 엘라히 후보가 주의원 186명의 표를 얻었으나 펀자브주 의회 부의장이 헌법 63A조를 근거로 PML-Q당 주의원 10명의 표를 불인정한 결과, 주의원 179명의 지지를 확보한 함자 사바즈 후보가 주총리로 재임명됨.³⁰⁾
 - 펀자브주 의회 부의장은 "PML-Q당 주의원들이 함자 사바즈 후보를 지지하라는 지시가 담긴 서한을 PML-Q당의 슈자트 후세인 당대표로부터 받았다"라고 전함.³¹⁾

28) Imran, Urooj(2022. 7. 16), "Explainer: Why the by-polls in Punjab are so important," *Dawn*.

29) Constable, Pamela(2022. 7. 24), "Pakistani election upset favors Imran Khan's return to power," *Wall Street Journal*.

30) Hayat, Muhammad Omer & Umar Farooq(2022. 7. 22), "Elahi suffers shock defeat as Hamza retains Punjab CM position after deputy speaker's contentious ruling," *Dawn*.

글상자 3. ‘헌법 63A조: 탈당 등으로 인한 자격상실’의 주요 내용

- (1) 단일 정당으로 구성된 원내 정당의 당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당대표는 서면으로 그러한 당원의 탈당을 선언할 수 있으며, 해당 선언문의 사본을 의장 및 선거위원장에게 전달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관련 당원에게 그 사본을 전달하여야 한다.
- (a) 소속 정당에서 탈퇴하거나 다른 원내 정당에 가입
- (b)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하여 그가 속한 원내 정당의 지시에 반하여 투표를 하거나 투표를 기권
- (i) 총리 또는 주(州)총리 선출
- (ii) 신임 투표 또는 불신임 투표
- (iii) 재정법안 또는 헌법(개정)안
- 다만 당대표*는 그러한 선언 전에 해당 당원이 그 선언이 이루어질 수 없는 이유를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설명.— *‘당대표’란 그 명칭을 막론하고 정당이 대표로 선언한 자를 말한다.
- (2) 의회의원이 원내 정당을 구성하는 정당의 후보·지명자 등으로 선출된 후에 서면으로 작성된 선언을 통해 해당 원내 정당의 당원이 되었다면 그 의회의원을 해당 원내 정당의 당원으로 간주한다.
- (3) 제(1)항에 따른 선언문을 접수한 의장은 2일 이내에 선거위원장에게 해당 선언문을 회부하여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선언문을 회부한 것으로 간주하며, 선거위원장은 선언문 접수 30일 이내에 그 선언문을 확정하거나 그에 대하여 달리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선거위원회에 해당 선언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 (4) 선거위원회가 해당 선언문을 확정할 경우, 제(1)항의 당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그 의석은 공석이 된다.
- (5) 선거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며, 대법원은 상고 제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사안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 (6)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상원의장 또는 하원의장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 (7) 이 조의 목적상 다음 각호와 같이 정의한다.
- (a) ‘의회’란 연방과 관련하여 말할 때는 하원 또는 상원, 주(州)와 관련하여 말할 때는 주의회를 의미한다.
- (b) ‘의장’이란 경우에 따라 하원의장, 상원의장 또는 주의회 의장을 의미한다.
- (8)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되는 제63A조는 2010년 「헌법」(제18차 개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차기 총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대체되는 제63A조가 발효될 때까지 기존 제63A조의 규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자료: The Constitution of the Islamic Republic of Pakistan;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은 헌법 63A조에서 명시하는 ‘정당’의 지시는 ‘당대표(Party Head)’의 지시가 아니라 ‘의회 정당(Parliamentary Party)’의 지시로 해석해야 하며, 따라서 PML-Q당의 편자브주 의원 전원이 페르베즈 엘라히 후보를 지지한 것을 ‘정당’의 지시라고 분석함.³²⁾
- 대법원이 ‘편자브주 의회 부의장의 PML-Q당 주의원 표 무효화는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발표하였고, 이후 PTI당-PML-Q당의 후보인 페르베즈 엘라히가 주총리로 임명됨.³³⁾

31) 주총리 선거 이후 슈자트 후세인 당대표는 △ 페르베즈 엘라히 후보가 PTI당의 후보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에 불만을 표했고 △ 국가기관을 비판하는 후보들을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며 △ PML-Q당 주의원들에게 서신을 보내 주총리 선거에서 누구에게도 투표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하나, 슈자트 후세인 당대표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임. 참고로 슈자트 후세인 당대표는 2004년에 54일 동안 총리직을 맡은 바 있으며, 페르베즈 엘라히의 사촌임. Malik, Mansoor(2022. 7. 24), “Criticism of institutions” was final straw for Shujaat,” *Dawn*.

32) “Court orders misconstrued”: Legal experts weigh in on dramatic Punjab CM election”(2022. 7. 22), *Dawn*.

33) Iqbal, Nasir(2022. 7. 27), “SC voids Hamza election, Elahi is new CM,” *Da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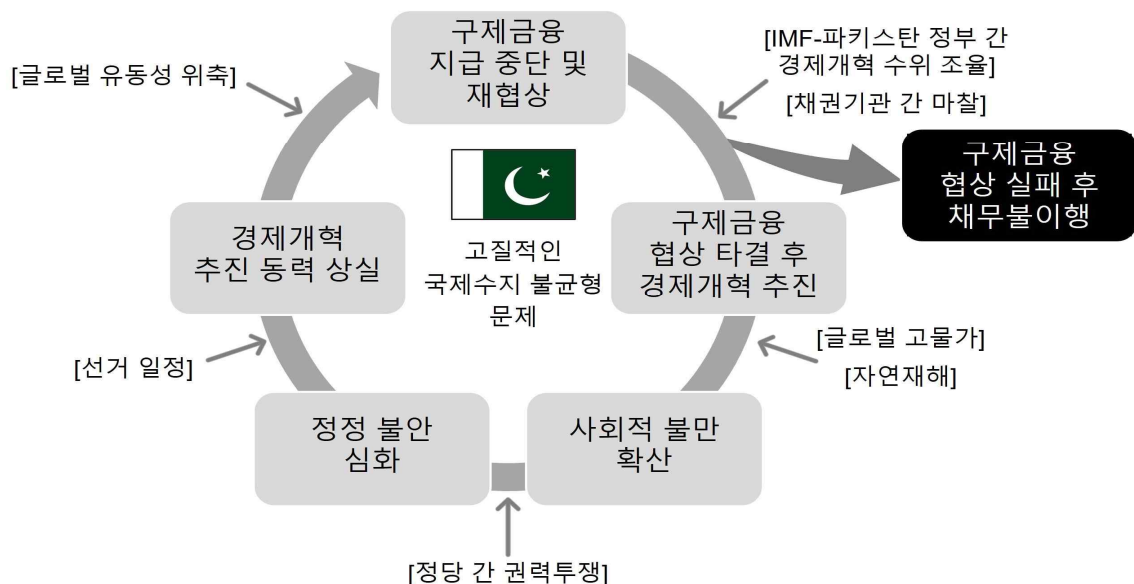
3. 전망과 시사점

■ 2022년 7월 IMF와 파키스탄 정부의 '실무자 합의안'에 명시된 IMF 자금이 2022년 하반기에 예정대로 지급되고, 단기적으로 파키스탄이 디폴트 위기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 파키스탄은 인구 2억 3,000만 명의 대국이며, 세계 6위의 핵탄두 보유국으로 디폴트 발생 시 경제적·외교적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IMF의 구제금융 지원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큰 상황임.
- 파키스탄 정부는 기존보다 강력한 수준의 경제개혁을 추진할 의지를 보이고 있고, 중국 등 주요 채권국 역시 파키스탄 외채에 대한 책임을 분담할 의지를 표명함.
- 2022년 7월 말 기준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는 2022년 하반기 IMF의 구제금융 지급을 기본 시나리오로 상정하고 있음.³⁴⁾

■ 그러나 사회적 불안과 정정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경제개혁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IMF가 다시 구제금융 지급을 중단하고 재협상에 돌입할 경우 디폴트 우려가 재확산되는 악순환 구조가 파키스탄 금융시장의 중기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그림 12 참고).

그림 12. 파키스탄 경제의 악순환 시나리오



주: 각 괄호 안은 불안 요인임.
자료: 저자 작성.

34) Yap, Karl Lester(2022. 7. 27), "Fitch, Moody's expects Pakistan to get \$1.2 billion from IMF," *Bloomberg*.

- 이미 고물가와 자연재해로 생활 수준이 열악해진 상황에서 파키스탄 정부가 강도 높은 경제개혁 정책을 실행할 경우 사회적 반발이 고조되고 여당에 대한 지지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사회적 불만 확산이 임란 칸 전 총리에 대한 지지 강화로 이어지며 현정부 퇴진 및 조기 총선을 요구하는 야당 PTI당의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임란 칸 전 총리는 2022년 9월 중앙의회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9개의 모든 선거구에서 본인이 PTI당을 대표하여 출마할 계획인데, 대승할 경우 조기 총선 요구의 타당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³⁵⁾
- 집권여당이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경제 구조조정 및 긴축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데, 정부의 경제개혁 추진 약화에 따른 IMF의 구제금융 지급 중단이 국제수지 불균형 악화 시기와 겹칠 경우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이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8월 상업용 전력계량기당 고정판매세에 대한 반발이 고조되자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³⁶⁾
- 조기 총선 및 2023년 총선 이후 IMF와 미국정부에 적대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는 임란 칸 전 총리가 정권 재탈환에 성공할 경우, IMF와의 구제금융 재협상 과정이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음.³⁷⁾

■ 파키스탄의 디폴트가 글로벌 경제 및 금융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나, 개발도상국 채무위기의 신호탄으로 인식되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파키스탄은 인구 규모가 크지만 세계경제에서의 중요도는 미미한 수준임(그림 13 참고).
- 그러나 경제취약국 중 경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파키스탄의 디폴트는 투자자들의 군집행동을 심화시켜 금융위기가 전염효과를 통해 여타 경제취약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 파키스탄은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 지원 대상인 74개 경제취약국 중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에 이어 경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국가로, 국제금융시장 내 주목도는 상대적으로 큼.
 - 지난 10여 년간 늘어난 변동금리 외채로 인해 경제취약국의 국제수지와 재정 상황이 선진국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예상됨(그림 14 참고).
 - 파키스탄과 같이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역시 IMF와 구제금융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남아시아 지역 차원의 금융위기 발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³⁸⁾

35) 상징적인 정치인이 다수의 선거구에 출마하는 목적은 인기를 과시하거나 지지도를 확인하기 위한 것임. 2018년 총선에서 임란 칸 전 총리는 5개 지역구에 출마해 전승한 바 있음. 현재 미얀마-1 선거구 국회의원인 임란 칸 전 총리가 2022년 9월 여타 선거구의 보궐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선거구 의원직 1석만 선택해야 하고 나머지 선거구에서는 차후 보궐선거가 다시 치러짐. 임란 칸 전 총리가 이러한 전략을 집권여당에 압박을 가하는 수단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됨. "Pakistan's economic crisis could deepen if Imran Khan wins all nine Assembly seats"(2022. 8. 6), *Asian News International*; Khan, Iftikhar(2022. 8. 6), "Imran to be lone PTI player on nine vacant NA seats," *Dawn*. PTI당에는 과거 해외자금이 정당으로 불법 유입되었다는 의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이 향후 지지율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Clark, Simon(2022. 7. 29), "The strange case of the cricket match that helped fund Imran Khan's political rise," *Financial Times*.

36) Kiani, Khaleeq(2022. 8. 1), "Tax rolled back to mollify angry traders," *Daw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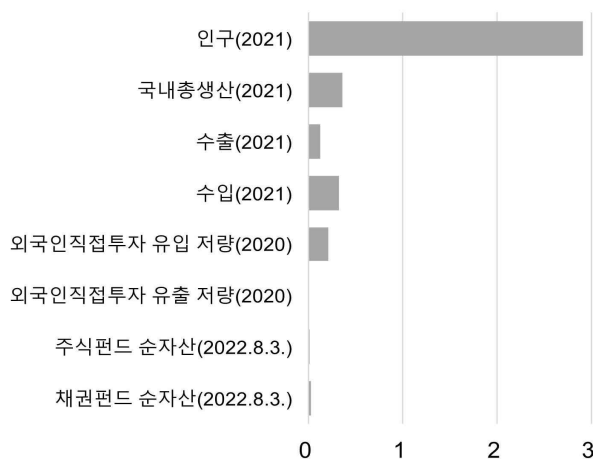
37) "PM Shehbaz says IMF doesn't trust Pakistan due to PTI govt reneging on agreement"(2022. 6. 23), *Dawn*; Dhume, Sadanand(2022. 4. 14), "Imran Khan rails against America," *Wall Street Journal*.

38) 김민희, 김도연(2022), 「스리랑카 경제위기의 주요 원인과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개발도상국 채무위기 해결방안 수립에 참여해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파키스탄의 사회 안정을 도울 수 있는 분야에 대한 원조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한국정부는 G20의 채무조정공동체계(CFDT)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개발도상국의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회복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글상자 4 참고).
- 한편 파키스탄에서 원조 수요가 높은 △ 식량안보 △ 홍수 예방 △ 홍수 피해 복구 △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 대한 지원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³⁹⁾
 - 파키스탄은 전쟁 중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등 최근 농산물 수출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높아 식량 확보가 불안정한 상황임.⁴⁰⁾
 - 파키스탄은 장기적 기후 리스크 지수에서 바하마와 방글라데시에 이어 8위를 기록함.⁴¹⁾
- 한국기업은 파키스탄의 디폴트 가능성을 고려한 컨틴전시 플랜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동시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파키스탄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파키스탄 정부가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 수입을 통제하고 있고, 환율 변동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당분간 지속됨에 따라 파키스탄 내 사업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도요타와 스즈키는 파키스탄 중앙은행이 수입을 위한 신용장 승인을 지연해 부품 확보가 어려워지자 파키스탄 내 공장 가동을 2022년 8월 부분적으로 중단하는 계획을 수립함.⁴²⁾
- 한국기업은 중단기적 위험과 장기적 기회를 고려한 균형적인 파키스탄 진출전략을 수립해야 함.

그림 13. 세계경제 내 파키스탄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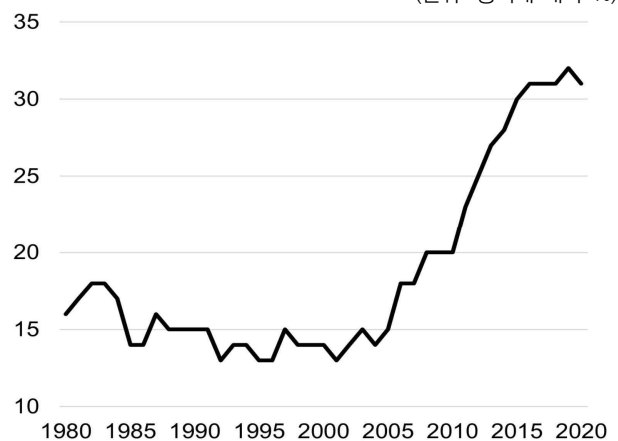
(단위: 각 지표의 세계 총규모에서 파키스탄이 차지하는 %)



자료: EPFR; IMF; UNCTADstat; UNDESA.

그림 14. 경제취약국의 연도별 변동금리 외채 비율

(단위: 총외채 대비 %)



주: 국제개발협회(IDA)의 자금 지원 대상국 대상임.

자료: World Bank.

39) 파키스탄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 협력국으로 2022년 한국의 대파키스탄 ODA 확정액은 367억 원이며, 주요 지원 분야는 물 관리 및 보건위생(202억 원), 교통(26억 원), 지역개발(19억 원)임. 관계부처합동(2022), '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40) 강문수, 정민지(202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아프리카-중동 식량안보 리스크와 전망」, KIEP 세계경제 포커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1) Germanwatch(2021), "Global climate risk index 2021; Who suffers most from extreme weather events? Weather related loss events in 2019 and 2000-2019."

42) Hassan, Syed Raza(2022. 7. 27), "Toyota, Suzuki to partially shut Pakistan output over forex, shortage issues," Reuters.

글상자 4. 경제취약국 채무상환 지원을 위한 다자간 협력방안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경제취약국이 빈곤 및 보건 위기에 빠지는 것을 우려해 G20과 주요 채권국 협의체인 파리클럽은 채무원리금상환유예조치(DSSI) 제도를 2020년 5월에 도입함.
 - DSSI 제도는 운영 기간 동안 상황이 어려운 채무원리금을 경제취약국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3년 또는 5년 동안 분할 상환하는 제도이며, 경제취약국은 특별한 조건 없이 요청만으로 참여할 수 있음.
 - 세계은행, IMF 등 국제기구들은 G20의 DSSI 제도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으며, 경제취약국의 재정 및 채무를 평가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제언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함.
- 73개 대상국 중 48개 국가가 DSSI 제도에 참여하였으며, 2020년 5월~2021년 12월 기준 129억 달러 규모의 채무 원리금상환이 유예되었음.
 - 2021년 1~12월 DSSI 제도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국가는 파키스탄(52억 달러), 앙골라(29억 달러), 미얀마(8억 달러), 잠비아(5억 달러), 세네갈(4억 달러) 순임(2022년 2월 기준 추정치).
- 공공 채권기관들은 민간 채권기관들의 자발적 DSSI 제도 참여를 독려했으나, 단 1개의 민간 채권기관만이 참여하며 ‘집단행동의 문제’가 발생했고, 공정하게 부담을 분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됨.
- G20과 파리클럽은 2021년 말 종료될 DSSI 제도에 이어 경제취약국의 채무상환에 대한 협상 및 채권자 간 조율을 위한 창구로 채무조정공동체계(CFDT)를 설립하는 방안에 2020년 11월 합의함.
 - 경제취약국이 CFDT에 채무조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IMF의 구제금융 계획에 참여해야 함.
 - 2022년 8월 기준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가 CFDT하의 채무조정을 요청한 상황임.
- CFDT는 채무국과 개별적으로 협의하던 중국정부가 여타 주요국 정부와 개발도상국 채무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기대됨.
 - 2020년 기준 대중국 채무가 DSSI 제도 대상 국가의 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로 대파리클럽 채무의 비중(11%)보다 크며, 중국정부는 DSSI 제도 대상 국가 중 절반의 가장 큰 양자간 공적채권기관임.
- CFDT하에서는 G20과 파리클럽 채권국이 채무국에 민간 채권기관에 대한 ‘동등한 채무 재조정 및 채무 상환 조건의 유지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공공-민간 채권기관 간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자료: Chabert, Guillaume *et al.*(2021. 4. 7), “Restructuring debt of poorer nations requires more efficient coordination,” *IMF Blog*; Cotterill, Joseph & Jonathan Wheatley(2022. 7. 31), “China agrees landmark debt relief deal for Zambia,” *Financial Times*; G20(2022. 2. 17~18), “Communiqué: G20 Finance Ministers and Central Bank Governors meeting”; Georgieva, Kristalina & Ceyla Pazarbasioglu(2021. 12. 2), “The G20 Common Framework for Debt Treatments must be stepped up,” *IMF Blog*; IMF(2021. 4. 8), “Questions and answers on sovereign debt issues.”; Kratz, Agatha *et al.*(2020), “Seeking relief: China’s overseas debt after COVID-19,” Rhodium Group; World Bank(2022. 3. 10), “Debt Service Suspension Initiative.”

- 현지 진출기업은 파키스탄의 디폴트가 원자재 조달 방법, 기업금융, 소비 패턴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분석하고 대응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신시장을 개척하려는 기업은 파키스탄의 잠재력을 고려하여 차세대 성장 분야와 현지 기업과의 협력관계 구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KIEP**